

산림조합중앙회, 영농부산물 파쇄 릴레이 캠페인 열어

산림청·산림조합·임업단체가 함께 산불 예방 총력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12일 강원 강릉시 연곡면 일원에서 산림청 및 임업단체, 회원조합과 함께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을 비롯해 김인호 산림청장과 최상태 한국전문임업인협회장 등 임업단체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고춧대와 파수 전정까지 등 영농부산물을 현장에서 직접 파쇄하며 산불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영농·임업 현장

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태우지 않고 파쇄하는 문화의 전국적 확산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는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오른쪽)과 김인호 산림청장(왼쪽)이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하고 있다.(산림조합중앙회 제공)

위험이다. 실제로 산림청 조사 결과 최근 10년간 평균적으로 발생한 546건의 산불 중 입산자 실화(31%), 쓰레기 소각(12%) 논밭두렁 소각(11%)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돼 부산물 불법 소각을 방지하는 일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산림조합은 봄철 산불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전국 산림조합 영농부산물 파쇄 일제 파쇄 주간'을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운영 중이며, 기간 동안 142개 산림조합에서 산림 인접 농경지와 소각 우려지역의 영농부산물을 집중 파쇄해 나갈 계획이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산림청, '부처 협업 동서트레일 활용 농·산촌 활성화 T/F' 착수회의 개최

부처 칸막이 없애고 '동서트레일'로 농·산촌 활력 깨운다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한국지산기술협회에서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 협업 동서트레일 활용 농·산촌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농촌체험·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모델을 발굴하고 부처간 정책·예산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기로 하고 TF 운영 목적과 분야별 역할, 협업체계 구축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충청남도 태안군까지 5개 시·도와 21개 시·군·구를 잇는 총 55개 구간, 849km의 장거리 트레일로, 올해 조성을 완료해 2027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림청은 모바일 앱 정식 구축, 안내체계 고도화, 안전관리 강화, 지역 연계 프로그램 보완 등 마무리 준비

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희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직무대행은 "동서트레일은 단순한 길을 넘어 지역과 사람을 잇는 활력소가 될 것이다"며 "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원팀(One-team)이 돼 농·산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부처 협업 동서트레일 활용 농·산촌 활성화태스크포스(TF) 착수회의 개최(산림청 제공)

산림청, 산불 방지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수락산 산불 최초 신고자에 감사패 수여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산불 방지에 기여한 유공자 2명에게 감사패와 함께 포상금 50만원을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해병1사단 소속 김00 상사로,

지난 1월 15일 전술 훈련을 위해 이동 중 도로 옆 야산에서 불길 이 치솟는 것을 목격 후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 진화해,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막

았다. 또 다른 유공자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김00씨로, 지난 1월 26일 새벽 2시 30분경 서울 수락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최초 신고함으로써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감시원이라는 마음으로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시고, 산불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2월 산불 발생위험 예측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가운데 영남지방은 강수량과 상대습도가

낮고, 기온이 높으며 서풍이 강해 평년 대비 산불발생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발표

예방수칙 준수 등 국민 동참 호소

정부는 7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2월 13일(금)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산불 위기경보 단계가 사상 처음으로 1월 중 '경계'까지 격상(1.27)되는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올해 발생한 산불(2.10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발생건수와 피해면적이 모두 크게 증가했다.

동해안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며, 설 연휴 전후 성묘 등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형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소각 금지 등 국민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동참을 간곡히 당부하고 자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다음 사항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부터 1월 20일로 앞당겨 시행했으며,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 행정안전부는 대책지원본부를 조기 가동했다. 아울러,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해 산림청, 군, 소방, 지방정부 등 가용한 모든 헬기를 투입하는 등 인력과 자원을 총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의 제1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안전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백 배 낫다"라는 대통령의 말처럼, 산불 초기부터 신속한 총



▲산림청 제공

력 대응으로 대형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민대피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불법소각 등 부주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AI·빅데이터 기반 '산불 전방위 대응 시스템' 가동

'Ready-Set-Go' 주민 대피 가이드라인 확립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기후 위기로 인해 연중화·대형화되는 산불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첨단 과학 기반 산불 전방위 대응 전략'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AI를 활용해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산불 발생 시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국립산림과학원은 대국민 서비스인 국가산불위험예보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최근 10년간의 산불 발생 통계와 기상 자료를 예측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현재 76% 수준인 산불위험 예측 정확도를 2027년까지 88%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에 실시간 위험 정보를 즉각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데스크탑 중심 서비스를 모바일 연동형으로 전환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산불의 99%가 인위적 요



▲첨단 과학 기반 산불 전방위 대응 전략 12일 발표(산림청 제공)

인으로 발생하는 국내 특성을 반영해 인구 밀집도와 등산로 활용 등 인간 활동 데이터를 추가한 예측 기술을 개발 중이며, 2027년부터 이를 시범 적용해 예측의 정확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불 발생 시 현장 대응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또한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 혁신을 이룬다.

첫째, 행정안전부와의 협업을 통해 '주민 대피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준비(Ready)-실행(Do)-즉시 실행(Go)'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체계에 따라, 화재 도달 8시간 전 산불확산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의 선제적 대피를 돕고, 5시간 전에는 대상 주민이 안전한 곳으로 지체 없이 이동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둘째, 산악 지형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효풍속 산출 로직'을 도입하였다. 단순 평균 풍속이 아닌 실제 산불이 이동한 경로를 계산해 적용함으로써, 산불확산예측 정확도를 기존 대비 약 30% 향상시켰다.

셋째, 차세대 AI 엔진으로 교체하여 지형 분석의 정확도를 5m 수준까지 4배 높였다.

나아가 2030년까지 AI 기술을 고도화하여 '산불진화 지능형 의사결정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는 동시다발적인 산불 상황에서 가용 헬기와 산불진화 인력의 최적 배치도를 즉시 제안하여, 60초 내에 가장 효율적인 진화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7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